달란트

『**달란트**』는 고대(古代) 세계에서 금(金)이나 은(銀)의 무게를 재던 도량형 단위였다. 한『**달란트**』는 금(金)『34.27kg』였는데, 오늘날 금(金) 1돈이『3.75g』, 1냥이『37.5g』이므로 한『**달란트**』는 약 금(金)『914냥』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금(金)을 의미하였다. 금(金) 1냥을 일백만원으로 계산한다면 금(金) 한『**달란트**』는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무려 약 십억원에 해당하는 거금(巨金)이라고 할 수 있다.

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뢰아 지역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납부하던 세금(稅金) 총액은 일년에『200 **달란트**』였다.

『**달란트**』라는 말은 희랍어의『τάλαντον, 탈란톤』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.『탈란톤』의 어원은『τλάω, 틀라오, 참다 to bear, 겪다, to undergo, 무릅쓰다, 감히 … 하다, dare』이다.

감히 무슨 일을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인내(忍耐)로서 겪어내면 균형감각(均衡感覺)이 생긴다. 그런 의미에서『탈란톤』이라는 단어는『균형, 저울, a balance』라는 뜻을 갖게 되었으며 아울러『**무게가 나가는 것**』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. 영어의 『talent, 재능, 능력』라는 단어도『탈란톤』에서 유래하였다.